

王氷의 생애와 그 의학사상의 특징

金 南一¹⁾

The Life of Wang B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Medical Concepts

Kim Nam il

Wang Bing reorganized 『The Yellow Emperor's Inner Canon · Essential Questions』 by adding 7 more volumes to the original 9 volumes and made it 24 volumes. And also rearranged the order in "preservation of health", "yinyang and five phases", "visceral manifestation", "treatment", "pulsation", "the channels", "diseases", "acupuncture", "movement of the qi", "medical virtue", "wanton theory" etc. Though this, Wang Bing hoped the 『The Yellow Emperor's Inner Canon · Essential Questions』 to be reborn into a systematic and methodical medical book.

Taoism,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Wang Bing's medical conception, is revealed in both the contents of the book and the rearrangement of the book's order. Another feature is that he explains most of the diseases by the channel theory. He insists the script be interpreted in a new way that fits the situation and not to be bound to the words it self. And this also shows one of his conception of medicine.

1. 서론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당나라의 의학자 王氷(AD 710 - 805)은 한의학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인물이다. 그가 그전부터 존재하였던 『黃帝內經·素問』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우수한 판본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판본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은 높은 활용도로 인하여 이후 『黃帝內經·素問』 판본의 교과서가 되었다. 둘째, 그의 노력으로 『黃帝內經』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이후 한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그가 첨가해 놓은 運氣七篇은 運氣學說의 연구를 유행시켜 시간과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王氷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해 몇가지 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왕빙의 생애를 살펴보고, 『次注黃帝內經素問』를 문헌학적으로 검토한 후, 왕빙 의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 왕빙의 생애와 업적

王氷(AD 710 - 805)은 당나라의 의학자로서 호는 계현자(啓玄子)²⁾이다. 그는 일찌기 太僕令이라는 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그를 王太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³⁾ 그는 현주자(玄珠子)를 스승으로 모셨고⁴⁾, 곽자재당(郭子齋堂)에서 “전대

2) “啓玄子”는 왕빙이 스스로를 호칭할 때 사용한 것으로써 “현주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啓問于玄珠子)”라는 말에서 연유한다고 周谷城의 『中醫學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 1989, P 498)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玄珠密語』의 王氷 自序에 나오는 “余卽遇玄珠子, 與我啓萌, 故自號啓玄子也, 謂啓問於玄珠子也”(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88)라는 말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 呂復도 “遇得玄珠子而師事之, 與我啓蒙, 故自號啓玄子, 蓋啓問於玄珠也.”(上揭書, P 1089)라 하고 있다.

3) 林億 등은 이에 관해서 “『唐人物志』를 살펴보면 왕빙은 당나라에서 太僕令을 지냈고 80여세를 살고 죽었다(按『唐人物志』云: 王氷仕唐爲太僕令, 年八十餘以壽終).”라고 하였다(嚴世蓁 主編, 『中國醫籍通考』 第一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P 31.).

4) 그 근거는 『玄珠密語』의 “이에 도를 찾는데 마음을 오로지하여 뜻을 가지고 어진이를 찾으매 玄珠子를 만나 이에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乃專心問道, 執志求賢, 得

현인인 張公의 秘本을 받아(受得先師張公秘本)(『素問』 秘本을 지칭함) 이를 참고로 하여 『素問』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하였다(『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序에 써 있음) 고 한다.⁵⁾

그는 어려서부터 의학을 좋아하였고 일찍부터 양생의 도를 좋아하던 차에 요행히도 진정한 경전 [內經을 말함] 을 접하여 의학학습의 귀감을 삼을 수 있었지만, 시중에 나돌고 있는 판본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으니, 篇目이 중복되어 있거나, 앞뒤 의미가 이어지지 않거나, 문장의 의미가 동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열람하는 일도 어렵고 해서 이래저래 세월만 흐르게 되었고 틀린 것을 그대로 서로 보고 베끼는 폐단이 반복되는 실정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개탄하고⁶⁾ 부지런히 힘써 찾아다녀 의학에 정통한 사람들의 지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12년의 각고끝에 바야흐로 이치의 요점을 깨달아서 그 의문시 되었던 책 내용의 득과 실을 고려해보니 깊이 어릴때부터 품고 있던 뜻을 얻었다 할 만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郭子齋堂에서 先師 張公의 秘本을 받게 되었다. 그 비본을 살펴보니 문자가 확실하고 의미가 두루 통하여, 한번 상세히 고찰해보니 모든 의심이 눈이 녹아내리듯이 해결되었기에 그는 저 스승이 주신 것이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 편집하고 주를 붙여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다.⁷⁾

遇玄珠, 師事之.”이다(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88.).

5) 周谷城의 『中醫學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 1989, P 497-498)에서는 이 두 사건(玄珠子를 스승으로 모신 것과 郭子齋堂에서 전대의 현인인 張公의 秘本을 받은 것)을 각각 師承관계를 말하는 두가지의 다른 학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 둘이 상호 모순될 이유도 없고 한 인물의 생애에서 얼마든지 모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6)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氷弱齡慕道, 夙好養生, 幸遇眞經, 式爲龜鏡, 而世本紕繆, 篇目重疊, 前後不倫, 文義懸隔, 施行不易, 披會亦難, 歲月既淹, 襲以成弊.”임(『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 27에 나옴).

본문중에 인용한 『黃帝內經』 조문은 “運氣七篇”을 제외한 부분은 石田秀實이 編한 『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第三卷, 第四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을 따랐으며, “運氣七篇”은 唐·王氷 著, 宋·高保衡이 校한 『黃帝內經素問』을 참조하였다.

7)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乃精勤博訪, 而并有其人, 歷十二年, 方臻理要, 詢謀得失, 深遂夙心. 時於先生郭子齋堂, 受得先師張公秘本, 文字昭皙, 義理環周, 一以參詳, 群疑氷釋. 恐散於末學, 絕彼師資, 因而撰註, 用傳不朽”를 참조함(『素問次注集

그가 새로 틀을 짜면서 발견한 잘못된 것은, 한 편이 거듭 나왔는데 따로 두개의 서로 다른 篇名을 붙인 것, 두개의 論을 합해서 하나의 目을 만든 것, 황제와 기백의 문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篇의 제목을 분리해서 붙인 것, 원문이 탈락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지 않고서 이것은 원래부터 빠진 것이라고 한 것 등이었다. 그는 이러한 예로 「經合」을 중복해 놓고 따로 「針服」이라는 篇名을 붙인 것, 「異法方宜論」을 「咳論」에 병합한 것, 「通評虛實論」 가운데에 「四時刺逆從論」을 끼워 넣고는 「四時刺逆從論」이라고 부른 것, 「經絡」을 「玉板論要」에 통합한 것, 「皮部論」을 나누어 요약해서 「經絡論」을 편술한 것, 「著至教論」을 뒤에 두고 「針解論」을 앞에다 편성한 것 등을 들고 있다.⁸⁾

그는 『素問』의 이전 판본과 先師 張公의 秘本을 상호 비교하여 81권 24권으로 편성하였다.⁹⁾ 그 가운데 죽간이 빠져 문장이 끊어져 의미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經論에 있는 것을 찾아 이를 옮겨 적어 보충해 넣었고, 제목이 누락되어 가리키는 바가 불분명한 것은 그 문장이 가리키는 바를 스스로 헤아려서 제목을 첨가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었고, 篇論이 합해져 있어 의미가 이어지지 않고 제목이 빠져 있는 것은 같은 주제별로 구분하여 따로 篇의 앞부분에 제목을 붙였다. 君臣이 물음을 청할 때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尊卑를 고찰하여 교정하고 문자를 첨가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었다. 착간되어 그 내용이 파괴되어버린 글과 전후가 중첩된 글은 그 전체적인 의도를 살펴본 후 쓸데없이 번잡한 부분은 없애버려 그 요체만 남도록 하였다. 글의 의미가 비밀스러워 소상하게 논술하기 어려운 것은 『玄珠』를 별도로 저술하여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첨가해놓은 것은 붉은 글씨로 써놓아¹⁰⁾ 지금 글과 옛 글이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¹¹⁾ 그는 그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君臣이 요절할까

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 28-29).

8)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或一篇重出, 而別立二名; 或兩論併吞, 而都爲一目; 或問答未已, 別樹篇題; 或脫簡不書, 而云世闕; 重經合而冠鍼服, 併方宜而爲咳篇, 隔虛實而爲逆從, 合經絡而爲論要, 節皮部爲經絡, 退至教以先鍼, 諸如此流, 不可勝數”을 참조함(『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27-28).

9) 이 작업에는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天元紀大論』, 『至眞要大論』 7편(일명 “運氣七篇”)의 보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절에서 언급할 것임.

10) 呂復은 “惜乎朱墨混淆, 玉石相亂”이라고 朱色 주석이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11)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其中簡脫文斷, 義不相接者, 搜求經論所有,

봐 두려워하는 일도 없게 되고 모든 세계인이 오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지극한 道가 실천되고 훌륭한 학설이 계속 이어져서 수천년 후에라도 성인의 은혜가 끝없음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¹²⁾

그가 저술했다는 『玄珠』라는 책은 송나라시대에 망실되었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오운육기의 변화에 관해 기술해 놓은 『素問六氣玄珠密語』十卷, 『天元玉冊』(『天元玉策』이라고도 함)三十卷, 『昭明隱旨』三卷과 方藥과 관계 있는 『元和紀用經』一卷등은 후세에 그의 이름을 가탁한 작품들이라고 한다.¹³⁾

3. 『次注黃帝內經素問』의 문헌학적 검토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素問』은 송나라 때 설치된 校正醫書局¹⁴⁾에서 林億, 高保衡 등이 당나라 때 王氷이 全元起(南北朝 梁代人)의 『訓解』를 바탕으로 새로 정리 주석한 『次注黃帝素問』을 재정리한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이다.¹⁵⁾ 그 편재의 차이에 관하여 논하는

遷移以補其處. 篇目墜缺, 指事不明者, 量其意趣, 加字以昭其義. 篇論吞并, 義不相涉, 闕漏名目者, 區分事類, 別日以冠篇首. 君臣請問, 禮義乖失者, 考校尊卑, 增益以光其意. 錯簡碎文, 前後重疊者, 詳其指趣, 削去繁雜, 以存其要. 辭理秘密, 難粗論述者, 別撰玄珠, 以陳其道. 凡所加字, 皆朱書其文, 使今古必分, 字不雜糅”의 내용을 참조함(『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32-33).

12)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君臣無夭枉之期, 夷夏有延齡之望. 俾工徒勿誤, 學者惟明, 至道流行, 徽音累屬, 千載之後, 方知大聖之慈惠無窮”을 참고함(上揭書 P 34).

13) 『中醫人物詞典』, 上海辭典出版社, 1988, p 24.

14) 宋代의 의약서적을 校訂하고 校刻하던 기구로 編集院에 속함. A.D 1057년에 창시됨. 이는 중국의 활판인쇄술이 발명되어 보급됨에 따라 출현한 것임. 이 기구는, 『素問』, 『靈樞』, 『難經』, 『甲乙經』, 『傷寒論』,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등의 고전의적을 계통적으로 교정하고 인행하여, 의서를 통일하고, 訛錯을 교정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으며, 송대 이전의 의서를 보존하여 流傳하고, 의학의 발전과 보급에 대하여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P 19-20).

15) 全元起的 『訓解』의 卷目次序와 王氷의 券, 篇第는 金重漢의 『왕빙에 대한 연구 - 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것은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¹⁶⁾ 큰 대강을 말하자면 본래 九卷이었던 것이 二十四卷으로 개편되었고, 본래 없었던 七卷¹⁷⁾의 내용이 보태졌고, 순서를 재 편성하여 양생(養生), 음양오행(陰陽五行), 장상(藏象), 치법(治法), 맥법(脈法), 경맥(經脈), 질병(疾病), 자법(刺法), 운기(運氣), 의덕(醫德) 및 잡론(雜論) 등의 순서¹⁸⁾로 재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빙은 소문이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의학이론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작업 속에는 새로운 내용이 새로 첨가되기도 하였다.

왕빙이 새로 첨가해 넣은 편은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이상 일명 “運氣七篇”)과 「六節藏象論」의 일부 내용이다. 왕빙은 이들 내용을 舊藏之卷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이에 대해 신교정에서 이들이 篇卷이 浩大하여 前後의 다른 편과 분량이 같지 않고 또 그 기록된 내용도 다른 편과 서로 통하지 않아서 陰陽大論의 문장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²⁰⁾ 그러나 劉君廉夫는 “第七卷은 이미 晉代에 없었고, 皇甫謐의 甲乙經序에서도 또한 亡失되었다 하였고, 隋經籍志에서는 黃帝素問은 九卷인데 梁代에는 八卷이었다 하고 또 黃帝素問八卷을 全元起가 주석을 붙였다고

P 8-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16) 자세한 내용은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140-143을 참조할 것. 이곳에서 그는 “王氷注本은 全元起注本에 비하여 순서도 명료하고 보다 계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全元起注本の 혼란한 구성을 철저히 개편해 일대 발전을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17) 宋代 校正醫書局에서 全起의 『訓解』를 처음 입수했을 때 전체 九券 가운데 七券만 없었다. 이것은 新校正의 “詳素問第七券, 亡已久矣, 按皇甫士安晉人也, 序甲乙經, 云亦有亡失, 隋書經籍志, 載梁七錄, 亦云止存八券, 全元起隋人, 所注本乃無第七.”라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8) 이 순서는 周谷城, 『中醫學三百題』, 上海古籍出版社, 1989, P 498을 근거함.

19)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雖復年移代革, 而授學猶存, 懼非其人, 而時有所隱, 故第七一券, 師氏藏之, 今之奉行, 惟八券爾”를 참조함(『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25).

20) 이 내용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에 나오는 “而氷自爲得舊藏之券, 今竊疑之, 仍觀天元紀大論, 五運行論, 六微旨論, 氣交變論, 五常政論, 六元正紀論, 至眞要論, 七篇, 居今素問四券, 篇券浩大, 不與素問前後篇券等, 又且所載之事, 與素問餘篇, 略不相通, 竊疑此七篇, 乃陰陽大論之文”를 참고함(『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30). 陰陽大論의 문장인 것 같다는 근거는 張仲景의 傷寒論序이다. 그 내용은 “撰用素問九券八十一難經陰陽大論”이다.

하였는데, 林億 등의 설에 근거할 때 全元起가 주석을 붙인 판본에는 第七卷 전체가 없다. 시대적으로 쯤나라 皇甫謐이 활동한 甘露(A.D 360년 전후)때와는 6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王氷이 舊藏之卷으로 七篇을 보충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내용적으로도 王氷이 보충한 篇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머지 篇文들과 전연 다르니 運氣를 논한 篇들과 六節藏象論의 718글자는 완전히 다른 학설에 의해서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明代의 목희옹(繆希雍)²¹⁾은 이미 이를 밝히고 있다. 林億 등은 이를 陰陽大論의 문장으로써 王氷이 얻어서 망실된 부분을 보충해 넣었다고 여기지만, 현재 王叔和의 傷寒例에서 인용하고 있는 陰陽大論의 문장을 고찰해보면 부합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송나라 신하들(林億, 高保衡 등)의 학설은 좇기 어렵다.”²²⁾라고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 하겠다. 김중환은 이에 관해서 “王氷의 補缺之篇인 七篇大論은 주로 運氣를 논한 편인데 宋代 林億 등이 陰陽大論의 문장을 취하여 補入한 것이라 하나 陰陽大論이란 서적이 없으므로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王氷의 보입한 점은 명백하여 摺편대론의 문장이 소문여편인 陰陽應象大論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가 적지 않으므로 그 내용은 소문과 상통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³⁾라 하고 있다. 실제로 “運氣七篇”에 나오는 많은 내용은 다른 편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며 이를 통해 이 편들은 全元起와 王氷 사이에 黃帝內經에 관심있는 어떤 사람이 보충해 놓은 것을 왕빙이 입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運氣七篇은 왕빙시대의 천문학 지식을 의학에 도입하여 발병기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한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었다. 宋代의 한의학과 劉完素를 필두로 시작된 금원시대 의학의 발전된 모습은 運氣七篇의 공헌과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21) 明代의 의학자. 특히 本草에 정통했고, 治病에 언제나 良效를 거두었음. 저술에는 『本草經疏』가 있음.

22) “第七券已亡于晉, 皇甫謐甲乙經序曰, 亦有亡失, 隋經籍志云, 黃帝素問九券, 梁八券, 又云, 黃帝素問八券, 全元起注, 据林億等說, 全元起所注本, 乃無第七一通, 上至晉皇甫謐甘露中, 已六百年, 而王氷爲舊藏之券, 以補七篇, 按王氏所補, 與素問餘篇文, 夙然不同, 其論運氣與六節藏象論七百十八字, 全然別是一家言, 明繆希雍既已辨白, 林億等以爲陰陽大論之文, 王氷取以補所亡, 今考王叔和傷寒例所引陰陽大論之文, 曾無所見, 宋臣之說, 乃難從焉”(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券,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P 31).

23) 金重漢, 『왕빙에 대한 연구 - 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P 35.

王冰은 또 내경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래 九卷이었던 것을 二十四卷으로 개편하고, 본래 없었던 七卷의 내용을 보태서 내경의 순서를 완전히 새로 짰다.

그리고 논리상 같은 내용인데도 상호 모순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 고쳤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 “春氣를 거역하면 少陽의 氣가 生하지 않으므로 肝氣가 울결되어 병변이 나타나고, 夏氣를 거역하면 太陽의 氣가 자라지 않으므로 心氣가 공허해지며, 秋氣를 거역하면 太陰의 氣가 수렴하지 못하므로 肺에 열이 생겨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冬氣를 거역하면 少陰의 氣가 閉藏되지 못하므로 腎氣가 쇠약해집니다²⁴⁾(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氣內鬱. 逆夏氣, 則太陽不長, 心氣內洞. 逆秋氣, 則太陰不收, 肺氣焦滿. 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氣獨沈)”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대로 본다면 春에는 少陽, 夏에는 太陽, 秋에는 太陰, 冬에는 少陰이 배속된다. 이것은 『素問·六節藏象論』의 心을 陽中之太陽, 肺를 陽中之太陰, 腎을 陰中之少陰, 肝을 陽中之少陽에 배속시킨 내용²⁵⁾과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은 왕빙의 수정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다. 이 네가지 四象配屬 가운데 문제되는 것은 秋(肺)의 배속과 冬(腎)의 배속이다. 新校正에서는 「六節藏象論」의 주석에서 『甲乙經』, 『太素』 등의 肺에 少陰, 腎에 太陰이 배속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²⁶⁾ 그 논리적 근거는 肺는 金에 배속되고 陽中之陰이며, 腎은 水에 배속되고 陰中之陰이라는 것이다. 新校正의 논리는 春은 少陽, 夏는 太陽, 秋는 少陰, 冬은 太陰이라는 四象의 사고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新校正이 이러한 논리로 「四氣調神大論」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四氣調神大論」의 내용은 經絡

24)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 63.

25) “岐伯曰: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其華在毛, 其充在皮, 爲陽中之太陰, 通於秋氣.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氣華在髮, 其充在骨, 爲陰中之少陰, 通於冬氣.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之少陽, 通於春氣.”(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 492-498.)

26) “新校正云, 按太陰, 甲乙經并太素, 作少陰, 當作少陰, 肺在十二經, 雖爲太陰, 然在陽中之中, 當爲少陰也.”(『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494),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并甲乙經太素, 少陰作太陰, 當作太陰, 腎在十二經雖爲少陰, 然在陰分之中, 當爲太陰.”(『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 496).

으로 설명하면 잘 맞아 떨어지지만²⁷⁾ 「六節藏象論」의 문장은 『甲乙經』, 『太素』 등에 나오는 본래 문장대로 되어 있어서는 經絡的 설명과 四象的(易學的)²⁸⁾ 설명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왕빙은 이 두 편에 나오는 내용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經絡的인 요소와 易學的 요소를 잘 혼용하고 있다. 이 배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六節藏象論」의 내용을 자의로 고친 것이다. 「四氣調神大論」에는 冬에 少陰을 배속시킨 것에 “少陰之氣, 內通於腎, 故少陰不伏, 腎氣獨沈”이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少陰之氣”는 뒤의 “內通於腎”이라는 문장과 연결시켜 볼 때 足少陰腎經의 經氣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왕빙이 同篇에서 經絡的 설명을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六節藏象論」의 腎에 대한 내용에는 “以盛陰居冬陰之分, 故曰陰中之少陰, 通於冬氣也. 金匱眞言論曰,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四象的 설명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명은 四象的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정은 經絡的으로 가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왕빙은 이를 통해 四象理論체계와 經絡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화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黃帝內經』의 체계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六節藏象論」에는 “運氣七篇”을 제외한 다른 편과 그 내용상 연관성이 적은 “岐伯曰昭乎哉問也”에서 “孰少孰多, 可得聞乎”까지의 718字가 첨가되어 있다. 신교정에서는 이 내용이 全元起本이나 『太素』에도 없으므로 왕빙이 보충해 넣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들 718字는 왕빙이 보충해 넣은 “運氣七篇”과 그 내용에 있어 서로 통한다. 그러나 왕빙은 이를 “運氣七篇”에 몰아 넣지 않고 卷三 「六節藏象論」에 집어 넣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이것은 두가지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왕빙이 의도적으로 “運氣七篇”과 따로 떼내어 이전부터 존재한 편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둘째는 “運氣七篇”을 입수하기 이전에 「六節藏象論」의 補入부분을 먼저 입수하여 보입한 후 주석까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가정을 먼저 설명하기로 하겠다. 만약 「六節藏象論」의 補入 부분이 “運氣七篇”과 거의 동시에 왕빙의 손아귀에 쥐어졌다면 그 내용속에 運氣七篇에 나오는 어느 한 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某篇에 曰하는 식의 인용이 하나라도 존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보입된 부분이 “運氣七篇”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보입된 부분에 나오는

27) 즉 春에 少陽(足少陽膽經), 夏에 太陽(手太陽小腸經), 秋에 太陰(手太陰肺經), 冬에 少陰(足少陰腎經).

28) 여기에서 四象的 설명이란 大小陰陽의 설명을 말한다.

“帝曰，太過不及奈何。岐伯曰，在經有也”라는 다분히 “運氣七篇”에 나오는 문장으로 주석을 가해야 하는 곳에서조차도 왕빙은 “言玉機眞藏論篇，已具，言五氣平和太過不及之旨也”라고 하여 “運氣七篇”과의 상호교류를 스스로 거부해 버렸다. 그래서 新校正은 이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王氷注에서 말한 玉機眞藏論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살펴보면 그 편에서는 脈의 太過，不及을 말한 것이지 運氣의 太過，不及과 平氣를 말한 것은 아니다. 마땅히 氣交變大論，五常政大論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詳王注言玉機眞藏論已具，按本篇言脈之太過不及，卽不論運氣之太過不及，與平氣，當云氣交變大論五常政大論篇已具言也)”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왕빙이 「六節藏象論」의 주석을 붙일 때 왜 그 흔한 “運氣七篇”에 나오는 太過，不及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궁색하게 「玉機眞藏論」에 나온 脈의 太過，不及을 사용한 것일까? 그렇다면 논자가 가정한 첫째 가정은 부정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運氣七篇”에 넣지 않고 「六節藏象論」에 삽입하여 이전부터 존재한 편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라면 “運氣七篇”의 모편할 하는 식의 주석이 한 군데라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運氣七篇과 이를 제외한 素問餘篇에는 유사구문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주석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교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스러운 정도로 素問餘篇에 주석을 가할 때 運氣七篇의 어느 篇曰하는 식의 인용문이 보이지 않는다. 신교정에서만 이를 이야기하지 왕빙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느낀 것 같지 않다. 논자는 이것이 아마도 왕빙이 素問餘篇의 주석이 끝난 후 運氣七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가정해 본다. 왕빙이 쓴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序의 “그래서 부지런히 힘써 찾아다녀 의학에 정통한 사람들의 지식을 손에 장악할 수 있었고, 12년을 지나 바야흐로 이치의 요점을 깨달아서 그 의문시 했던 책 내용의 득과 실을 고려해보니 깊이 어릴때부터 품고 있던 뜻을 얻었다고 할만 하다. 이 때에 郭子齋堂에서 先師 張公의 秘本을 받게 되었다(乃精勤博訪，而并有其人，歷十二年，方臻理要，詢謀得失，深遂夙心. 時於先生郭子齋堂，受得先師張公秘本)”라는 말을 통해서 先師 張公의 秘本을 얻기 전에 왕빙은 이미 12년동안 『素問』을 연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六節藏象論」에 나오는 補入 부분은 이미 이전에 미리 확보된 내용이고 주석이 끝난 상태였으므로 그대로 놔두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경을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한 왕빙의 공로는 높이 살만하다.

체계성의 문제에서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것도 있다. 「熱論」은 傷寒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新校正에 따르면 원래 「奇病論」에 있었다. 그런데 왕빙이 이를 독립시켜 「熱論」이라고 편명을 붙여버렸다. 이것은 당나라시대에 傷寒病이 奇病에 분류될 만큼 변두리 질환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 시대에는 이미 『傷寒論』이 통용되고 있었고 연구도 활발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현재에 전해지고 있는 책에는 遺篇 二篇(刺法論 第七十二와 本病論篇 第七十三)이 첨가되어 있다. 이들 두편에 관해 龍伯堅은 “北宋의 高保衡·林億 등이 醫書를 교감할 때에는 이 양편이 돌연히 출현하여 경문과 함께 주석까지 존재해 있다. 이미 없어졌던 이 두 편이 재출현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素問遺篇’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 두 편の内容과 문장은 모두가 매우 천박하며 분명히 『素問』의 다른 편과 같은 것이 아니다. 新校正의 시대부터 일찌기 의문이 제기되었고, 취할 바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일본의 다기원간은 이 두 편의 경문과 주해는 모두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서 용어나 이론의 천박함을 근거로 왕빙 이후 사람의 위작이라고 인정했다. 어느 쪽의 견해이든 일리가 있다. 즉 소문유편이 저작된 시기는, 왕빙 이후, 고보형·임억 등의 이전인 9-10세기 전후일 것이다.”²⁹⁾라 하고 있다.

4. 왕빙 의학사상의 특징

왕빙 의학사상의 특징적인 면은 도가적인 색채를 띠는 것, 병증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경전을 인용하여 이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므로써 새로운 차원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道家는 중국 고대 철학 유파의 하나로써 “道”를 세계의 최후 본원으로 여기므로 道家라고 칭한 것이다. 『漢書·藝文志』에 ‘道家’라는 칭호가 처음 나오는 데, ‘九流’의 하나에 배열해 놓았다. 老子는 도가의 창시자로 ‘道’를 핵심으로 삼는 사상체계를 제기하고 이를 사용하여 우주만물의 본질, 구성, 변화와 본원을 설명하였다. ‘道法自然’을 주장하여 天道는 無爲하여도 萬物은 自然히 化生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고대의

2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 43.

神權主宰와 神創說을 부정하는 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莊子學派는 도가에서 소위 정통학파이다. 이외에도 도가는 法家, 名家와 합류하여 점차 黃老之學을 형성하였는데 慎到, 田駢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한나라 초기에 黃老之學이 통치계급의 추수를 받아 한동안 융성되었다. 漢武帝에 이르러 儒術이 獨尊되어 黃老의 바람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연관은 讖諱說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 중에 부각되었다. 도가사상의 연원은 길어 중국의 정치, 사상,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방면에 고루 깊은 영향을 미쳐서 중국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그 대표작은 『老子』, 『莊子』, 『列子』 등이 있다.³⁰⁾

중국 문화에서 도가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한의학의 이론적 기틀이 되고 있는 『黃帝內經』은 한대에 형성되었으므로 도가와 연관성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黃帝內經』을 살펴보면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그러므로 같이 나왔으며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故同出而名異耳).”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老子的 “이 양자는 같은 근본에서 나왔으나 그 이름을 달리한다. 이것을 한가지로 말할 때 玄이라 한다(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³¹⁾라는 문장에서 왔다. 河上公은 이에 대해 “兩者’는 有欲과 無欲을 말하고, ‘同出’이란 모두 人心을 낸다는 것이고, ‘異名’이란 명명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니,……玄은 天이니, 말하자면 有欲한 사람과 無欲한 사람이 한가지로 天에서 氣를 받았다는 것이다.”³²⁾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왕빙은 『黃帝內經』 문장에 대해 “同’은 好欲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異’는 그 老壯의 名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同, 謂同於好欲, 異, 謂異其老壯之名).”라 하였고, 마시(馬蒔)³³⁾, 오곤(吳崑)³⁴⁾ 등은 각각 “陰陽의 요체는 인간이 같이하는 것

30) 張岱年 主編, 『中華思想大辭典』, 吉林人民出版社, 1991, P 873-874.

31) 盧台俊 譯解, 『新譯道德經』, 弘新新書, 1989, P 22.

32) “兩者謂有欲無欲也. 同出者, 同出人心也, 而異名者, 所名各異也,……玄, 天也, 言有欲之人, 與無欲之人, 同受氣于天.”

33) 明代의 의학자. 그는 斑固의 『漢書·藝文志』에 실린 『黃帝內經』 18卷과 『素問·離合眞邪論』에 실린 “九針九篇”의 論法에 따라, 『內經』을 『素問』, 『靈樞』各9권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울러 王冰 等人이 註解한 卷數와 古書의 記載가 맞지 않으며, 『靈樞』의 文體가 古奧하여 옛부터 註解가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素問』, 『靈樞』를 다시 分卷하여, 註解를 가해,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및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各9卷을 編注刊行하였다.

34) (1551-1620). 明代 의학자. 저서로는 『醫方考』, 『脈語』, 『吳注黃帝內經素問』, 『針方六集』 등 서적이 있음. 『內經』을 추승했고 치료방면에서는 針藥 併用을 주장하여, 후세의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같지만 혹 强하기도 하고 혹 老하기도 하여 그 名이 다르다(陰陽之要, 人所同然, 而或强或老, 其名則異)”, “한가지로 天地의 氣를 얻어서 形을 이룸을 ‘同出’이라 하고, 長生과 不壽의 차이가 있음을 ‘名異’라 한다(同得天地之氣以成形, 謂之同出, 有長生, 不壽之殊, 謂之名異)”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경의 본뜻과도 잘맞아 떨어진다.

양생학설은 도가사상에서 근원한다. 왕빙은 『黃帝內經』 여기저기에 나오는 養生에 관한 논술에 노자, 장자에 나오는 문장으로 주석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왕빙의 개인적 견해에 의한 재해석이라기 보다는 내경 자체의 도가적 성격과 연관이 있다. 『素問·四氣調神大論』의 “이미 병이 든 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병들기 전에 치료한다(不治已病治未病)”는 말은 내경에서 말하는 양생의 대강으로써 도가적 성격과 연관성이 있다. 왕빙이 노자, 장자를 이용하여 주석을 가한 예는³⁵⁾ 『素問·上古天眞論』의 “상고의 사람으로 양생의 도를 아는 사람은 음양을 본받고 술수에 화합하였다(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에 대해 “노자가 말하기를: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기를 주고 받아서 화합한다³⁶⁾(老子曰,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고 道生章(42장)의 주석을 인용한 것과 “마시고 먹는데에 절제함이 있고, 기거함에 常道가 있고, 망령되게 힘쓰지 않는다(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上同)라는 문장에 대하여 “광성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고요하고 맑게 하여 그대의 몸을 괴롭히지 말고 그대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비로소 오래 살 수 있다(廣成子曰, 必靜必清, 無勞汝形, 無搖汝精, 乃可以長生)”³⁷⁾(이것은 『莊子·在宥篇』에 보임)라고 장자를 인용한 것과 “성욕으로 그 精을 고갈시켜 그 眞氣를 소모시켜 흩으러뜨린다(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에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³⁸⁾(弱其志, 強其骨)”라고 『老子·安民 第三章』의 문장을 인용한 것과 “정기를 충만하게 보전할 줄을 모르고, 시의 적절하게 정신을 다스리지 못한다(不知持滿, 不時御神)”에 “지속적으로 이를 채우려 하면 이를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다³⁹⁾(持而盈之不如其已)”라고 第九章의 문장을

35) 金重漢은 왕빙주석에서 老子가 17회, 庚桑楚(莊子の 편명으로 인용된 경우도 있고 노자의 제자로 인용된 경우도 있다)가 5회 인용되어 있다고 하나 “老子曰” 혹은 “莊子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한 것 및 문장을 변형시켜 인용한 것이 많으므로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素問·上古天眞論』의 “今時之人不然也”라는 문장에 “動之死地, 離於道也”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老子·貴生 第五十章』의 “人之生, 動之死地”라는 문장을 따온 것이다.

36) 盧台俊 역해, 『新譯 道德經(老子)』, 弘新新書, 1989, P 151.

37) 해석은 金達鎭 역해, 『禪詩와 함께 엮은 莊子』, 고려원, 1990, P 155을 참조함.

38) 盧台俊, 上揭書, P 26.

인용한 것과 “진기가 말미암아 순조로와져서 각각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도 모두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에 대해 “욕망을 눌러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수를 지켜 자기 능력의 한계에 머물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가 있다⁴⁰⁾(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라고 第四十四章의 문장을 인용한 것과 “위와 아래가 서로 탐하지 않으니 그 백성을 순박하다고 말한다(高下不相慕, 其民, 故曰朴)”에 대하여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항상 만족하다⁴¹⁾(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와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하게 된다고 했다⁴²⁾(故聖人云, 我無欲而民自朴)”라고 각각 노자 제46장과 제57장의 문장을 인용한 것 등 수없이 많이 있다.

왕빙의 도가적 경향은 老莊 문장의 직접적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老莊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도가적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주석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素問·寶命全形論』의 “첫째는 일러 神을 다스림이다(一曰治神)”에 대해 “그 마음을 한결같고 정미롭게하여 망령되게 움직여 어지럽히지 않는다. 손을 호랑이를 쥐고 있듯이 하고 정신을 못 사물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른 까닭은 무릇 정신을 고르게 다스려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자하기 때문이다(專精其心, 不妄動亂也. 所以云手如握虎, 神無營於衆物, 蓋欲調治精神, 專其心也).”와 “무릇 침을 놓는 진실된 도는 반드시 먼저 神을 다스리는 것이다(凡刺之眞, 必先治神)”에 대하여 “그 정신을 한결같이 하고, 고요히하고 움직여 어지럽히지 않으니, 침을 놓는 참된 요체는 여기에 있다(專其精神, 寂無動亂, 刺之眞要, 其在斯焉).”라고 주석을 가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왕빙의 도가적 경향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왕빙에 의해 재편집된 『素問』의 차례와 관련이 있다. 본래 全元起의 『訓解』에는 卷九에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陰陽應象大論」이, 卷四에 「生氣通天論」, 「金匱眞言論」이 있었던 것을 앞부분으로 몰아 놓고 있다⁴³⁾. 이들 篇들은 특히 도가 사상과 연관이

39) 盧台俊, 上揭書, P 40.

40) 盧台俊 역해, 『新譯 道德經(老子)』, 弘新新書, 1989, P 155-156.

41) 盧台俊, 上揭書, P 160.

42) 盧台俊, 上揭書, P 192.

43) 이에 관한 고찰은 金重漢의 上揭書, P 8-10을 참조함.

많으므로 왕빙의 의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는 또 병증에 대한 해석에 상당 부분을 經絡學說로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五藏生成篇」, 「診要經終論」, 「藏氣法時論」, 「陽明脈解論」, 「刺熱論」, 「評熱病論」 등 내용에 대한 주석들에 수없이 많이 나온다. 이들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생략한다. 이들 내용들에 대한 주석은 하나같이 병증이 나오면 그 병증과 관련된 經絡의 流注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經絡이 체표부를 흐르면서 내부의 오장육부와 항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락은 가장 실증적 해석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이로써 설명하는 것은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경락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精明”을 穴名으로 해석하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脈要精微論」의 “맥의 동정을 진찰하고 精明을 보고, 五色을 관찰하여, 오장의 유여부족과 육부의 강약과 형체의 성쇠를 보아 이로써 같은 부류의 증상을 참고하여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판결한다(切脈動靜而視精明, 察五色, 觀五臟有餘不足, 六腑強弱, 形之盛衰, 以此參伍, 決死生之分).”라는 문장에 대해 “精明은 穴名이다. 코의 양쪽 눈구석에 있다.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명이라고 하였다(精明, 穴名也, 在明堂左右兩目內眥也. 以近於目, 故曰精明)”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精明을 穴名인 “睛明”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후로 吳崑은 “精明은 눈 가운데 눈동자의 정신이다(精明, 目中眸子精神也)”라고 이 설을 부인하고 있다. 吳崑의 해석은 아마도 同篇에 나오는 “무릇 정명은 만물을 보아 흑백을 구별하고 장단을 살피는 것이다. 긴 것이 짧게 보이고 흰 것이 검게 보이는 것은 精이 衰한 것이다(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短長. 以長爲短, 以白爲黑, 如是則精衰矣).”와 “머리는 精明의 府이다. 머리가 기울고 깊은 데에서 보듯하는 것은 정신이 장차 탈진되려는 것이다(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라는 문장에 근거한 것 같다. 왕빙의 이러한 주석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왕빙이 精明을 經穴로 해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외부로 드러난 症狀으로 내부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진단의 요체라면 이를 검증하고 설명하는데 경락은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고 또 표층에서 그 기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인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도구로써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경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경문을 글자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새로운 해석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素問·熱論』의 “삼일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가히 땀을 내어서 낮을 수 있고, 삼일을 채웠을 경우에는 대변을 소통시켜 가히 낮을 수 있다(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라는 문장에 대해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正理傷寒論』을 근거로 “이것은 表裏의 큰 요체를 말한 것이다. 正理傷寒論에서 脈이 大浮數한 것은 병이 表에 있으니 땀을 낼 수 있고, 脈이 細沈數한 것은 병이 裏에 있으니 대변을 소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날짜가 오래 되어도 표증이 있어서 脈이 大浮數하면 오히려 發汗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날짜가 비록 오래 되지 않아도 裏證이 있어서 脈이 沈細數 하면 오히려 대변을 소통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곧 마땅히 脈證에 따라 땀을 내거나 대변을 소통시켜야 하는 것이다(此言表裏之大體也. 正理傷寒論曰 脈大浮數病爲在表可發其汗, 脈細沈數病在裏可下之. 由此則雖日過多, 但有表證而脈大浮數, 猶宜發汗, 日數雖少, 卽有裏證, 而脈沈細數猶宜下之, 正應隨脈證以汗下之)”라고 주석을 가한 것⁴⁴⁾은 의사의 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素問·湯液醪醴論』의 “황제가 말하기를 形이 꺾어지고 血이 다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백이 말하기를 신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신을 부리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백이 말하기를 鍼石은 道이기 때문이다(帝曰: 形弊血盡而功不立者何. 岐伯曰: 神不使也. 帝曰: 何爲神不使. 岐伯曰: 鍼石, 道也).”라는 문장에 대해 “神이 鍼石의 妙用을 부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志意가 의사의 지시를 위배하였기 때문이다(言神不能使鍼石之妙用也. 何者, 志意違背於師示故也).”라고 붙인 주석이 그 예이다. 내경의 문장은 형체가 망가져서 침을 놓아도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 神이 부려지지 않아서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왕빙은 이에 대해 神이 鍼石의 妙用을 부리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환자의 志意가 의사의 지시를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었다. 여기에서 왕빙이 말한 神은 의사의 神⁴⁵⁾이다. 뒤의 문장 “精神不進, 志意不治, 故病不可愈. 今精壞神去, 營衛不可復收. 何者, 嗜欲無窮, 而憂患不止, 精氣 壞, 營衛除, 故神去之而病不愈也.”를 살펴보면 神을 환자의 神으로 보

44) 『中醫學三百題』(P 500)에서는 이것을 왕빙이 변증논치 방면에 공헌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5) 山田業廣은 “왕빙주에서는 神을 의사의 神으로 본 것 같은데 틀린듯하다(王注, 似以神爲醫者之神, 恐非是)”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P 620).

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왕빙은 의사의 神으로 풀고 있다. 이것은 왕빙이 의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왕빙은 수많은 경전을 인용하여 주석을 달고 있다. 인용서목은 老子, 莊子, 周易, 尙書, 正理論, 陰陽書, 八十一難經, 左傳, 內經中誥流注圖經, 山海經, 抱朴子 등 다양하다.⁴⁶⁾ 왕빙은 이러한 인용문들을 통해 『黃帝內經』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5. 결론

王氷은 본래 9권이었던 『黃帝內經·素問』을 24권으로 개편하였고, 본래 없었던 7권의 내용이 보태었다. 또한, 순서를 재 편성하여 양생(養生), 음양오행(陰陽五行), 장상(藏象), 치법(治法), 맥법(脈法), 경맥(經脈), 질병(疾病), 자법(刺法), 운기(運氣), 의덕(醫德) 및 잡론(雜論)등의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왕빙은 『黃帝內經·素問』이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의학이론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였다.

運氣七篇은 왕빙시대의 천문학 지식을 의학에 도입하여 발병기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한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었다. 宋代의 한의학과 劉完素를 필두로 시작된 금원시대 의학의 발전된 모습은 運氣七篇의 공헌과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六節藏象論」에 나오는 718字는 왕빙이 보충해 넣은 “運氣七篇”과 그 내용에 있어 서로 통한다. 왕빙이 이를 “運氣七篇”에 몰아 넣지 않고 卷三 「六節藏象論」에 집어 넣은 이유는 첫째, 왕빙이 의도적으로 “運氣七篇”과 따로 떼내어 이전부터 존재한 편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라는 것과, 둘째, “運氣七篇”을 입수하기 이전에 「六節藏象論」의 補入부분을 먼저 입수하여 보입한 후 주석까지 완료되었다는 것 등의 두가지로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王氷의 의학사상의 특징 가운데 도가적인 경향은 인용되어 있는 내용적인 측면과 재구성한 목차의 특징의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병증에 대한 해석에 상당 부분을 經絡學說로 해설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것이다. 경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경문을

46) 이에 대해서는 金重漢, 『왕빙에 대한 연구 - 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P 5-7을 참조할 것.

글자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새로운 해석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의 의학사상의 일면을 엿보게 해준다.

6. 참고문헌

- 嚴世蕓 主編, 『中國醫籍通考』 第一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 周谷城, 『中醫學三百題』, 上海古籍出版社, 1989.
-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二,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三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三, 黃帝內經研究叢書 第四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 金重漢, 『왕빙에 대한 연구 - 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 盧台俊 譯解, 『新譯道德經』, 弘新新書, 1989.